

## 태국 2024: 탁신의 귀환과 2027년의 기약

서지원\*

### 국문초록

어느 정당과 정치인을 언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제거할지 모를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태국의 정당들은 2027년 총선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혼인평등의 실현 등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 2024년 태국 정치의 최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8월의 까우끌라이당 해산과 세타 총리 해임이라면, 화제의 인물은 오랜 망명을 끝내고 2023년 귀국한 탁신 치나왓 전 총리였다. 2월에 경찰병원 생활을 마무리한 탁신은 딸인 패팅탄 치나왓 프어타이당 대표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 더욱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어타이당 연립정부의 친서민 정책 실현은 탁신의 현역 시절에 비해 신속함이 떨어지며, 군사쿠데타 유산 청산 분야에서 정부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주변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불신 여론은 당파적 이슈로 활용되며 이주민 권리 보장과 경제협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비토권을 가진 보수 세력과의 타협으로 연립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뿌라차촌당과도 경쟁해야 하는 프어타이당이 예전과는 다른 무역 장벽의 강화와 외교적 패권 경쟁의 가운데에서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제어: 태국, 탁신, 패팅탄, 프어타이당, 까우끌라이당, 뿌라차촌당, 헌법재판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부교수, suhjiwon@snu.ac.kr

## I. 들어가며

“탁신이 돌아왔다!” 11월 동북부(이싼) 지방 우던타니 도행정위원장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선 탁신 치나왓 전 총리는 유세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선언했다.<sup>1)</sup> 17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무리하고 2023년 8월에 프어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세타 타위신 총리의 연립정부가 출범한 직후 귀국했던 탁신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가 아닌 경찰병원 14층에서 머물렀으나, 2024년 2월에 가석방된 이후 왕성한 대외 활동에 나섰다. 2024년 8월, 세타 총리에게 총리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탁신의 막내딸인 패팅탄 치나왓 프어타이당 대표를 총리로 한 새 정부가 구성되자 탁신 전 총리는 뉴스메이커로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탁신의 본격적인 귀환은 2001년 타이락타이당의 선거 승리와 탁신 총리의 첫 취임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태국에 아직 ‘포스트 탁신 정치’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2006년 쿠데타로 탁신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태국 정치에는 늘 탁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나, 이제 본체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2024년의 정세는 탁신의 타이락타이당이 하원 500석 중 377석을 석권했던 2005년 선거 직후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2023년 선거에서 프어타이당은 500석 중 141석을 얻어 의석수에서 신진 정치세력인 까우플라이당(진진당, 151석)에 이은 2위에 머물렀고,

---

1) “누구든 마약상을 만나면 탁신이 돌아왔다고 전해라”라는 맥락이었지만, 오랜만에 유세 연단에 올라 귀환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기뻐하는 탁신 전 총리의 모습을 보면 그가 귀환을 알리고 싶어 하는 상대가 마약상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유세 동영상은 여러 뉴스 채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PPTV HD 36 채널의 2024년 11월 14일 라이브 방송 <https://www.youtube.com/live/DGLKfyZtQrM?si=QtSdReTrPmI0Rz4L> 등을 참조했다.

쿠데타 군사정부의 주축이었던 장군들의 정당들과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했다. 2024년 8월의 까우끌라이당 해산과 세타 총리의 해임으로 드러났듯이 사법부의 판결은 정당과 정치인들을 정치 무대에서 한 순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데, 프어타이당이 이러한 판결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2027년에 예정된 다음 총선 시기까지 프어타이당의 연립정부가 안정적으로 순항할지, 그리고 까우끌라이당이 탈바꿈한 빠라차촌당이 2023년 선거에서 증명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분명한 것은 왕실모독죄(형법 제112조)로 기소된 24명을 포함하여 33명의 정치수가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으며,<sup>2)</sup> 2020년 왕실개혁 시위를 주도했던 이논 남과 변호사는 모든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18년 10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심각한 상황에서 태국의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도 프어타이당 연립정부는 20년 전 타이락 타이당 정부와는 많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태국 경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빠라우트 정부보다 경제 분야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프어타이당 정부가 2027년 총선 시기까지 정책 개입을 통한 신산업분야 발전 및 수요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지 주목된다.

---

2) 태국인권변호사센터(TLHR) 자료를 토대로 한 통계이며, 33명 중 일부의 명단은 인터넷언론 빠라차타이 SNS계정에 공개되어 있다.

[https://www.instagram.com/p/DEP\\_bjMpTfT](https://www.instagram.com/p/DEP_bjMpTfT)

## II. 2024년 태국 정치: 2027년 총선을 향한 제한된 정치적 움직임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한 총리 교체와 원내 제1당 해산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도 태국의 정치세력들은 2027년 총선을 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프어타이당 연립정부는 전국민 지원금을 비롯해 타이락타이당 시절과 유사한 정책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해 왔지만, 군사쿠데타의 유산을 청산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편이다. 미얀마 이주민과 캄보디아 영토분쟁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당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상원 선거와 도행정위원장 선거 결과는 2027년 선거에서 더 큰 표차로 승리하겠다는 까우플라이당의 다짐이 순조롭게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한다.

### 1. 정당정치와 헌법재판소의 칼

2024년 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8월에 있었던 까우플라이당 해산과 총리 교체이다.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법 관련 활동 때문에 해산당하고 지도부가 정치일선에 나설 수 없게 된 모습, 그리고 선거로 구성된 연립정부의 총리가 인사 문제로 총리직 박탈이라는 지나친 징계를 당하는 모습에서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태국 사법부의 시각이 여전히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2024년 1월 말 헌법재판소는 까우플라이당이 형법 제112조 왕실 모독죄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 토의, 저술, 소통 등의 활동

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9인 전원합치 판결을 내렸다. 군주제의 전복은 헌법 위반인데, 까우끌라이당이 행해 온 왕실모독죄의 개정 시도는 ‘군주를 국가수반으로 하는 민주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판결의 근거였다(Harberkorn 2024; TLHR 2024a). 2021년에 까우끌라이당 의원 44명이 발의했던 왕실모독죄 개정안은 일반 시민들이 다른 이들에 대해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왕실청을 통해서만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엄중한 처벌을 지양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바트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당시 의원들의 입기는 이 법안이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되었다.

태국의 정당법은 입헌군주제라는 체제에 위해를 가하는 정당이 법원에 의해 해산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1월 판결 이후 까우끌라이당 해산은 시간 문제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까우끌라이당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했고, 8월 7일 헌법재판소는 1월의 판결을 인용하며 까우끌라이당 해산과 11명의 운영위원에 대한 10년간의 참정권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차이타왓 툴라는 대표와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를 비롯한 11명은 10년간 참정권이 제한되어 공직에 출마하거나 정당 운영위원직에 오를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중 현역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곧바로 뼈라차촌당으로 당적을 변경했고, 당대표직은 30대 남성이자 IT 전문가인 나타퐁 르엥뻬야웃이 맡게 되었다.

2007년의 타이락타이당 해산 판결 이래 2008년 피플파워당, 2020년 아나콧마이당 등 태국의 정당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해산되고 지도부의 참정권이 제한된 사례는 적지 않으나, 지금까지의 정당 해산 판결이 주로 선거자금 등 선거부정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던 반면 2024년의 까우끌라이당 해산은 왕실모독죄 개정이라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신생정당이었던 타이락사찰당이 2019년 선거에서 푸미폰 국왕의 딸인 우분랏 공주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가 왕실의 정치화이자 입헌군주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유사한) 이유로 해산된 적이 있으나, 이 역시 정책보다는 선거 절차에 관련된 문제였다.

8월 7일의 정당 해산 판결 이후, 8월 14일에는 세타 총리의 해임 판결이 뒤따랐다. 탁신의 변호사로서 법정모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던 피짖 촌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한 행위가 공직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틀 후인 8월 16일에는 30대 여성이자 세타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업가였으며, 2023년 총선에서 프어타이당이 내세웠던 총리 후보 중 1인이었던 패팅탄이 총리로 선출되었다.<sup>3)</sup> 세타 내각의 인사들 중 아누틴 쩌위라꾼 내무부 장관(폼짜이타이당 대표), 타위 셋성 법무부 장관(쁘라차차당 대표) 등 연립정부 주요 정당 인사들이 유임된 가운데, 타이락타이당의 등장 이래 내내 탁신계 정당과 각을 세워 온 민주당이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각에 참여했다는 변화가 있었다.

한편 2014년 군사쿠데타의 핵심 인물인 뿌라윳 왕수완 장군이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은 2023년 세타 내각에 참여했으나 뿌라윳과 프어타이당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패팅탄 내각에는 탐마낫 프롬파와 파벌만이 참가했다. 팔랑쁘라차랏당은 연정 참여파와 비참여파로 3개월간 갈라져 있다가 탐마낫을 비롯한 팔랑쁘라차랏당 의원 20명이 12월 초 플라탐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 분열 사태가 어느 정도

3) 프어타이당은 2023년 선거에서 다른 정당과 달리 총리 후보를 세 명이나 내세웠다. 워낙 자주 일어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대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타 전 총리의 해임이 결정되었을 때 제3의 후보였던 검찰총장 출신 차이까셈 니띠시리 교수(1948년생)의 총리 임명 가능성이 잠시 거론되었으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패팅탄 대표의 총리 취임 쪽으로 결정되었다. 패팅탄은 2023년 선거에서 ‘피타 마니아’의 바람이 불기 전에 총리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프어타이당 총리 후보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정리되었다. 정당 내 파벌의 존재가 잘 알려져 있는 태국에서도 (Ockey 2004; Chambers and Waitookiat 2020) 이처럼 정당 내에서 하나의 파벌만이 따로 내각에 참여하는 일은 흔치 않기에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다.

## 2. 정책 성과: 친서민 정책의 진전, 쿠데타 청산의 지연

집권 2년차를 맞은 프어타이당 연립정부의 선거정책 실현 성과는 어떠했는가? 2023년 선거에서 프어타이당이 발표한 각종 친서민적 정책은 2001년 탁신의 타이락타이당 정부와의 연속성을 드러냈다. 2001년 선거에서 타이락타이당은 보편적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30바트 의료보험, 3년간의 농가부채상환연기, 마을 단위 소액금융 프로그램인 100만 바트 마을펀드, OTOP(1면 1제품) 등 서민과 지역공동체 친화적인 정책을 대거 발표한 후 결단력 있게 실행하여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는 그 이후 보조금을 활용한 디지털기기와 저가 주택 보급 등 브랜드화된 정책으로 이어졌다(서지원 2006; Phongpaichit and Baker 2008). 타이락타이당을 계승한 잉락 치나왓 총리의 프어타이당 정부 시기에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2013년에는 전국에 보편적으로 하루 최저임금 300바트가 실현되었다(Suchiro 2017).

2023년 프어타이당의 선거정책 중 이를 계승한 대표적 정책으로는 부채 경감과 전국민 지원금인 디지털 지갑 1만 바트, 최저임금 인상을 들 수 있는데, 2023년 선거의 핵심 정책들은 2001년만큼 속도감 있게 실현되지는 못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탁신이 총선 전에 하루 800바트라는 인상 목표치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2027년 하루 최저임금 600바트를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공약이 조정되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말 일일 임금이 400바트까지 인상되었어야 하나, 12월 말 3자 협의의 결과 푸껫 등 4개

도에서만 400바트 최저임금이 실현되었고 대부분의 도에서는 2% 정도의 인상이 이루어졌다(Arunmas 2024).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최남부 3개도(빠따니·알라·나라티왓)에서는 330바트에서 337바트로의 인상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던 전국민 지원금 디지털 1만 바트 공약은 재원 마련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소득이나 자산이 높은 계층을 배제한 선별 지원과 단계적 시행으로 조정되었다. 16세 이상의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금 신청 기간은 8월에 시작되었고, 1단계로 장애인과 복지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1만 바트가 지급되었으며 2025년 초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디지털 1만 바트의 실패는 탁신 레거시의 종말을 뜻할 것(Jatusripitak 2024)이라는 연초의 논평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정책 집행의 속도와 지원 대상에서 변화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현 정부는 정책 이행 상황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2023년 공약사항에 더해 탁신 정부 당시의 정책을 되살려내어 성공을 배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1월 우던타니 선거유세에 등장하여 귀환을 알린 탁신은 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디지털 1만 바트 이외에도 계약금 없는 저가 주택 공급, 마을펀드와 OTOP 재활성화 등 20년 전 집권기의 친서민 정책 부활, 그리고 집권기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던 정책인 ‘마약과의 전쟁’을 연상케 하는 마약 근절과 콜센터 사기 근절 등의 정책을 언급했다. “30바트 잊지 않았지? 아직 쓰고 있나?”이라며 보편적 건강보장 확대라는 탁신 정부의 성과를 상기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며, 군부 쿠데타가 없었더라면 빈곤이 완전히 근절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프어타이당 주요 인사들은 마약과 싸우고 1만 바트 지원금을 지급하면 탁신의 주장대로 다음 선거에서 프어타이당이 200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



감을 표했다.

공공병원 중심으로 안착해 온(서보경 2022) ‘모든 병을 치료하는(락사톡룩) 30바트’ 건강보험은 민간병원의 참여와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모든 곳에서 치료하는(락사톡티) 30바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며 2024년 내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다. 2025년부터는 환자 정보 공유와 원격진료, 메신저 예약 등 디지털 요소를 확대한 ‘락사톡티’ 건강보험이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친서민 정책과 반대로, 군사정부 유산의 청산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에서 프어타이당 연립정부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 2017년 헌법은 쿠데타 이후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정된 군사정부 시대의 유산으로, 보통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상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한 인사 관련 권한을 많이 보유한다는 점, 헌법에 명시된 ‘20년 국가계획’의 존재가 선출된 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Thai Studies Programme 2024).<sup>4)</sup> 프어타이당과 빠라차춘당(옛 까우끌라이당)은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혀 왔으나 양당이 개헌의 절차와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고, 개헌 절차에서 상원의 권한이 중요한 상황에서 2024년에 새로 선출된 상원을 보수정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에 양당의 합의만으로 개헌을 이루기도 힘든 상황이다. 2021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전면 개헌을 위해서는 최소한 2차례의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정치권은 이것 이외의 개헌 절차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원에 개헌 절차를 다루는 법안이 올라오고는 있으나, 국민투표와 헌법초안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2027년 선거 이전에 전면 개헌을 이루기는 힘들다는 데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4) 왕실개혁 이슈도 관련되어 있다.

사면법은 탁신 퇴진 시위의 격화 이후 선거무효화와 군사쿠데타가 발생했던 2006년 이후의 정치적 유죄판결에 대해 개별 재심 없이 사면위원회를 통한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적 화해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었다. 태국인권변호사센터에 따르면 5천 명 이상의 태국 시민이 2006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의사표현과 집회 참여 등 정치적 권리의 행사 과정에서 비상포고령 위반과 선동죄, 컴퓨터범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TLHR 2024b).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국민사면네트워크가 2023년부터 진행한 입법 서명운동 캠페인을 통해 제출한 법안 이외에 까우플라이당과 보수정당인 루엠타이 상찰당 등이 만든 복수의 사면법안이 하원에 발의되었으며, 2월부터 6개월간 하원에서 사면위원회가 활동하며 법안의 내용을 조정하기도 했다(Wongsaranon 2025). 그러나 왕실모독죄의 포함 여부에 대한 빠라차촌당 및 국민사면네트워크와 여타 정당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에, 사면을 통한 정치적 화해의 전망은 여전히 멀리 있다.

2014년 쿠데타의 10주년을 맞아 까우플라이당과 프어타이당은 공히 군사쿠데타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에 까우플라이당은 국가평화유지위원회 포고령의 합법성에 대한 문구 삭제, 공무원이 권력 탈취 세력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쿠데타 세력에 대한 사면 금지, 20년 국가계획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분개헌 법안들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으나(Sattaburuth 2024a),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당이 해산된 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는 못했다. 한편 12월에 프어타이당의 빠라웃 시니파닛 의원이 장군 임명 권한을 사령관에게 일임하지 않고 내각이 임명한 위원회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부행정법 개정안, 일명 ‘쿠데타방지법’을 내놓았을 때 연립정부 내 보수정당의 반발이 거세자 프어타이당은 이 법안을 빠라웃 의원 개인이 벌인 일로 치부했고 법안은 결국 철회되었다.

### 3. 권리 보장과 규제 철폐, 백래시

왕실모독죄와 관련된 정치적 자유의 제한은 개선되지 않은 반면, 동성혼 허용과 같이 입법에 의해 권리 보장의 진전을 이룬 분야도 있다. 혼인법에서 남성, 여성, 남편, 아내 등의 용어를 젠더중립적인 단어로 교체한 혼인평등 법안은 재석 의원 414명 중 399명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을 표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3월 말 하원을 통과했으며, 6월에는 상원을 통과했다.<sup>5)</sup> 태국은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으며, 입양과 관련된 법안에 ‘부모’라는 용어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배우자들은 젠더에 상관없이 입양의 권리도 갖게 되는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까우플라이당은 2019년 아나콧마이당 시절 하원에 LGBT 의원들을 진출시켰으며, 비록 2023년까지 입법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혼인평등 법안을 발의하여 심의 단계까지 진전시킨 적이 있기에 혼인평등에 대해 자신들의 정책을 프어타이당 정부가 받아 안은 것으로 해석한다.<sup>6)</sup> 독과점 반대의 상징인 주류자유화법안 역시 이와 유사하게 해석되는 분야이다. 주류 생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에 주류 시장의 독과점이 계속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아나콧마이당 시절부터 입법화가 추진되던 ‘진보 양조 법안’은 2022년에 내각이 주류 생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결의하면서 심의가 중단되었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까우플라이당의 양조 법안이 다른 정당들이 제출한 법안과 지나치게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

5) 혼인법 개정에 따른 혼인신고는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되었다.

6) 이에 대해 프어타이당은 자신들이 타이락타이당 시절부터 동성커플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잉락 정부 시기인 2013년에 당이 시민결합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The Nation 2023/06/03). 혼인평등 입법화라는 성과는 두 당의 경쟁 구도의 산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데 정부는 12월에 중소기업 양조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Matchon Online 2567; Thai PBS World 2024/10/01).<sup>7)</sup>

규제 철폐를 위해 프어타이당이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은 카지노 합법화이다. 8월 재무부는 ‘복합유흥공간법안’이라는 이름의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관광 수입 증대와 불법 도박 양성화를 취지로 한 이 법안은 2024년 말 현재 아직 내각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이며, 품짜이타이당을 비롯한 연립정부 내외의 정당들이 우려를 표명했으나 입법 계획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정부 정책 중 뚜렷한 백래시가 관찰되는 분야는 시민권 확대와 이주민 권리 보장이다. 10월 말 내각은 태국 국적 없이 태국에 장기 거주했거나 태국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48만 3천여 명의 소수민족과 이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해 국적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무국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적 부여 과정을 간소화한 조치였지만 『방콕포스트』는 이에 대한 백래시가 상당하다고 보도했으며 (Sattaburuth 2024c), 프어타이당 정부가 ‘타이(태국인, 태국)를 위한(프어)’ 정당이 아니라 미얀마인을 위한 정당이라는 #พรรคเพื่อพม่า(팍프어파마)라는 해시태그도 등장했다. 이것은 9월에 뿌라차촌당의 티사나 춘하완 의원이 하원에서 전쟁을 피해 온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교육과 의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설을 한 후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พรรคเพื่อพม่า(팍뿌라차촌파마, 미얀마 국민의 당)라는 해시태그의 변형이다. 인권친화적 정당을 표방하는 뿌라차촌당을 조롱하는 이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이들은 태국이 이주민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주고 있다고 여기는데, 이러한 인식이 프어타이당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표출된 것이다.

---

7) 2025년 1월에 프어타이당의 ‘공동체양조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두 당이 경쟁적으로 추진해 온 양조산업 독과점 완화와 중소기업 양조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은 일단락되었다.

두 정당의 이주와 시민권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면, 캄보디아와의 국경 문제에 관한 꾀점 양해각서 문제는 연립정부에서 빠진 팔랑쁘라차랏당이 제기했다. 팔랑쁘라차랏당 의원들은 10월 말 기자회견을 열어 탁신 1기 정부 초기인 2001년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맺은 꾀점 근처 국경분쟁지역에 대한 양해각서에 의거해 양국의 석유·가스전 개발 협력이 진행된다면 태국이 캄보디아에 영토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Sattaburuth 2024b). 꾀점 논란은 훈센 전 총리 및 훈마넷 총리와의 친분을 숨기지 않아 온 패팅탄 총리가 꾀점을 캄보디아에 양도하기로 했다는 주장, 이미 2001년에 꾀점을 캄보디아에 넘긴 것이라는 주장 등으로 번졌다. 게다가 12월에는 2005년 노란셔츠 집회를 주도했던 손티 림통꾼이 ‘나라를 팔아넘기는 양해각서’를 파기하지 않으면 정권반대 시위를 시작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빠라웃 총리의 오랜 집권 기간에도 파기하지 않았던 양해각서가 ‘반탁신’ 시위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양국의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은 늦추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4. 각종 선거와 빠라차촌당의 미래

2024년에 주요 선거는 없었지만, 상원과 도행정위원장 선거가 각 정치세력의 인기와 영향력의 가늠자로 활용되었다. 6월에 실시된 상원 선거는 국민에 의한 직접·보통선거가 아닌, 20개 직능집단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등록된 40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내부적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졌다. 2019년과 2023년의 총선에서 군부가 임명한 250명의 상원의원이 총리 선출에 참여했던 반면 2024년 6월에 선출된 200명의 상원의원은 총리 선출에 참여할 권한은 없지만, 헌법 개정과 입법, 그리고 인사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정당의 이름을 걸고 출마하는 선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콧마이당 대표였던 타나톤 쩡롱르영킷이 상원 후보 등록 캠페인을 벌이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각 정치세력은 상원에 자신들과 연계가 있는 인물들을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상원 선거 결과 하원 선거에서의 인기와는 별개로 까우끌라이당과 연계가 있는 인물들은 거의 상원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하원에서 14%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폼짜이타이당이 상원 전체 의석의 과반수가 넘는 의원을 진출시켜 비토권을 가진 세력으로 등장했다(Chalermphanupap 2024).

도행정위원회는 도로·전기·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관할하는 기구로 조례 제정, 예산과 개발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무부가 임명하는 도지사와는 별도로 위원과 위원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며(Sirivunnabood 2021), 중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2024년의 도행정위원장 선거 결과 빠툼타니(6월)·랏차부리(9월), 핏사눌록(9월)·우던타니(11월)·우본랏차타니(12월)에서 프어타이당 후보가, 수린(11월)에서는 폼짜이타이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빠라차촌당 계열 후보는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특히 탁신이 정치적 귀환을 본격적으로 알린 우던타니 선거에서는 피타 전 까우끌라이당 대표를 비롯한 빠라차촌당 계열의 주요 인물들이 선거 유세에 총출동하여 탁신과 설전을 벌이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었는데,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빠라차촌당 후보가 1위를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프어타이당의 승리였다. 빠라차촌당 후보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득표는 그전 선거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는 점, 도행정위원장 선거는 특히 지역 인사들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전국단위 선거와는 다르다는 점, 아나콧마이당과 까우끌라이당 시절에도 도행정위원장 선거에서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하원 선거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빠

라차촌당의 미래를 밝게 보려는 이들도 있지만, 하원 선거에서 승리했던 지역에서조차 당선이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결과이다.

8월 7일의 해산 결정 당일 밤 열린 집회에서 까우끌라이당의 지도자들은 2027년 선거에서는 더 큰 승리를 거두자고 다짐했다.<sup>8)</sup> 2020년 아나콧마이당 해산 당시와 달리 까우끌라이당 해산은 주요 시위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까우끌라이당의 후신인 빠라차촌당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27년 선거에서는 상원이 총리 선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빠라차촌당이 의석만 많이 얻는다면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예전보다 크다. 그렇지만 2027년 선거 전에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병립제로 선거가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야만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sup>9)</sup> 빠라웃 장군이 아닌 프어타이당이 정부 운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와 선명하게 대비되던 이미지에 프어타이당보다 실력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더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칼이 춤추는 가운데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지지자들의 효능감을 유지하는 것 역시 2027년 선거를 기약하는 빠라차촌당이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

8) 피타 전 대표는 “최소 270석, 300석이면 더 좋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하원 과반수는 251석이지만 태국 정치의 특성상 갑자기 의원들이 대거 참정권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270석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outube.com/live/vldPqN\\_JgcA?si=hN4xMZGu-thHoTms](https://www.youtube.com/live/vldPqN_JgcA?si=hN4xMZGu-thHoTms)

9)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김홍구(2023) 참조.

### Ⅲ. 2024년 태국 경제와 외교: 개방과 협력을 통한 발전 모색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조립 분야에 진출했던 일본 기업 다수가 투자 감축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첨단 기업 유치에 힘쓰는 가운데 관광 진흥과 ‘소프트파워’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성과가 프어타이당 연립정부 하에서의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자외교에서 태국은 탁신 정부의 유산인 범아시아 협력기구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 강화에 방점을 찍는 것과 더불어 브릭스·OECD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세계 여러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시도하고 있으나, 주변국인 미얀마 문제 해결에는 기대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 1. 정부 정책과 경제발전

태국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의 2025년 2월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태국 경제는 2.5%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의 1.9%를 상회하는 것이지만 주변국인 말레이시아(5%), 싱가포르(4%)의 같은 해 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래 최저인 0.4% 수준으로 전기와 연료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었으며, 부동산 시장과 차량 판매 등이 연내 부진한 상황에서 2024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4%이며 이 중 40%는 비공식 대출인 것으로 파악된다(Arunmas 2025).

세타 정부는 2월 말 ‘태국 비전 2030’을 발표하며 태국을 관광, 웰니스 및 의료, 식품, 항공, 미래 자동차 제조업 등 주요 전략 산업 분야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세타



정부가 주력한 분야는 비자 폐지 및 입국 절차 간소화를 통한 문호 개방이다. 3월에는 중국과의 상호 30일 무비자 입국이 실행되었고,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인도·카자흐스탄·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및 EU국 대부분의 경우 입국 절차에서 도착비자를 폐지하고 무비자 60일 체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Regalado 2024). 태국관광청에서는 ‘마하 송끄란 세계 물축제’를 비롯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세계적 축제 및 행사 진흥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세타 총리가 투어에서 태국 대신 싱가포르를 선택한 테일러 스위트를 언급하는 등 국내외 대중문화와 연계한 관광 진흥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태국관광청은 2024년에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숫자가 목표치인 3,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으며, 이는 2023년에 비해 26% 증가한 것이다(TAT Newsroom 2024/12/28).

관광 정책과 더불어 ‘태국적인 것’을 일자리로 전환시킨다는 소프트웨어 진흥 정책 역시 세타 정부와 패딩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태국 국가 수준의 창의경제 또는 창조경제 지원 정책은 2004년 탁신 정부 시기에 설립된 태국창의디자인센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태국적인 것’을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책은 민주당 아피싯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아피싯 정부의 ‘태국창의경제프로그램’은 관광·식품·수공예·마사지·전통예술·대중문화·패션·광고 등의 산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Intarakumnerd 2017; Suehiro 2017; Suehiro 2019). 빠라웃 정부 시기인 2018년에는 창의경제청이 설립되었고, 소프트파워리는 용어는 적어도 2022년에 래퍼 밀리가 코첼라 페스티벌 무대에 망고스티키라이스를 들고 올랐던 무렵부터 인기를 끌었다. 2023년 집권 이후 프어타이당 정부의 소프트파워 정책은 기존의 기구들 이외에도 국가소프트파워진흥위원회, 태국창의문화기구(THACCA) 등 새

로 설립된 기구들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Cogan 2024). 20년 전에 비해 태국 대중문화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신장된 상태에서 등장한 정책이기 때문에 관광 산업 등과 연계하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특히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자동차 산업은 일본 기업이 잇따라 공장 철수를 발표하면서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다. 5월에 스즈키가 판매 부진과 중국차와의 경쟁 등을 이유로 2025년까지 태국의 공장을 모두 닫겠다고 발표했으며, 스바루 역시 태국 공장의 전면 폐쇄를 알렸다. 7월에는 혼다가 양대 공장 중 아유타야 조립 공장의 문을 닫고 부품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고, 11월에는 닛산 역시 전세계적으로 생산을 축소하면서 태국의 조립 공장 2개 중 1개를 폐쇄하고 1,000명을 감원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태국의 자동차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요타는 태국에서의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을 약속하면서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up>10)</sup>

일본 투자의 비중이 큰 태국 자동차 조립 산업의 생산 감축은 주요 투자자인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판매 부진 및 전기차와의 경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태국의 자동차 수요가 15년래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진한 상황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의 자동차 기업인 비야디와 아이온, 유차이가 태국에 공장을 열었고 한국의 현대차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지만, 신규 투자 기업을 통해 기존 기업의 생산 감축을 만회할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테슬라는 태국 전기차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Bangkok Post 2024/

10) <https://x.com/ThaiEnquirer/status/1869734680737812821> Thai Enquirer는 SNS기반 언론으로 기사 제목이 없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9일에 작성되었다.

12/13).

태국 제조업 전반으로 눈을 돌려 보아도 전망은 밝지 않다. 태국 산업부에 의하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태국의 제조공장 폐쇄율은 40% 증가했으며, 일자리 감소율은 80% 증가했다(Siring and Thepgumpanat 2024). 태국 정부가 발표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의하면 일본·홍콩·중국·싱가포르 등 해외에서의 투자 규모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했지만, 태국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 얻는 일자리는 44% 감소했다(Khaosod English 2024/10/02). 정부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9월 말에 알파벳이 구글의 데이터와 클라우드 센터를 태국에 짓겠다고 발표한 것 이외에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 2. 다자외교 및 주변국 외교

다자외교에서 태국이 올해 이룬 성취 중의 하나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이다. 2014년 쿠데타 직후에는 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태국의 시도가 유엔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했으나, 10년 후인 2024년에는 태국에서 시민·정치적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인권운동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카타르, 마셜제도 등과 함께 2025년부터 3년간 활동할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되는 데 성공했다(TLHR 2024c).

그런데 패딩탄 총리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는 9월 말 유엔총회가 아닌, 탁신 정부 시기 태국의 주도로 출범한 ACD 제3차 정상회담이었다. ACD는 탁신 정부가 “ASEAN+3 체제를 넘어 동서를 포괄하는 아시아 전체의 협력 달성을 위한 협의체”로 구상한 국제기구로,<sup>11)</sup>

---

11) 대한민국 외교부 공식 누리집  
[https://down.mofa.go.kr/www/wpge/m\\_3896/contents.do](https://down.mofa.go.kr/www/wpge/m_3896/contents.do)

탁신은 이 기구의 창설을 자신의 주요 외교 업적으로 여겼다. ACD는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를 포괄하며 협력의 방점은 무역과 투자 등 경제 분야에 쏠려 있었다(Chachavalpongpun 2010). 정상회담이 2012년과 2016년에 단 두 차례 열리는 등 그간 ACD를 통한 국제협력이 깊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나, 태국은 10월 초 정상회담에서 2025년 의장국 수임과 함께 유일한 범아시아 협력기구인 ACD를 통해 아시아의 세기를 열겠다고 다짐하며 외교력의 일정 부분을 ACD에 쏟을 것임을 예고했다(Shinawatra 2024).

2024년에 가장 주목받을 만한 태국 정부의 외교적 움직임은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에의 동시 가입 시도이다. 태국 정부는 2024년 2월에 OECD에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OECD가 태국을 가입 후보국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입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Tangsathaporn 2024). 2009년에 4개 회원국으로 출발한 브릭스는 2010년 남아공의 가입 이래 5개국 체제를 유지하다가 최근 신규 회원국을 다수 모집하고 있다. 2024년 초에 이집트, 이란 등 4개국이 정식 가입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도 브릭스의 파트너 국가 초청을 받아들였다.<sup>12)</sup> 미국은 서방 선진국 중심의 OECD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은 브릭스의 주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미국과 중국의 제로섬 게임에 휘말려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양국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여론조사의 결과(Alderman et al. 2024)가 태국 정부의 외교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의 안보 상황 악화에 의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이웃 국가의 입장에서 미얀마의 내전 격화는 태국 외교에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이다. 탁신 정부 시기와 그 이전에도 태국은 미얀마에서 넘어오

12) 이 중 인도네시아는 2025년 초에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먼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는 마약, 난민, 그리고 태국 영토로 번지는 내전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탁신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화를 개최하여 일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바 있다 (Katanyuu 2006). 2024년의 태국에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얀마에서 넘어오는 마약과 난민, 이주민이 정쟁의 대상이 될 만큼 정치·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다. 4월 초에는 미야와디에서 철수하는 미얀마 군인들에게 태국 정부가 항공편을 제공했다고 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태국이 주도한 대화로 인해 미얀마의 안보 상황, 그리고 이와 관련된 태국의 사회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미얀마와의 대화를 책임지던 외교장관은 4월 개각으로 부총리직을 박탈당한 후 사임했으며, 탁신과의 사이가 더 긴밀한 것으로 알려진 현 외교장관으로 교체되었다. 탁신은 치앙마이에서 미얀마 반군 그룹들과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태국 외교부는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의 움직임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Thai PBS World 2024/06/14). 태국 정부는 12월에 이틀간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5개국 및 아세안 주요국과 미얀마 군부 정부의 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는데, 이는 2023년의 유사한 회담이 인도네시아의 반발을 샀던 것과 달리 주변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었으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Strangio 2024).

### 3. 한국과의 관계

양국의 공식적 외교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한국 이민 당국의 자의적 입국 금지 증가에 따른 태국인의 한국 관광 기피, 그리고 한국인의 인종주의와 혐오, 차별에 관련된 온라인에서의 논란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에 수교 65주년을 맞은 한국과 태국은 각종 문화교류 및

학술행사를 진행했으며, 그 중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랜만에 온라인 포맷을 벗어던지고 태국 대중문화 스타들을 초청하여 10월 청계천에서 개최한 ‘Sawasdee Seoul Thai Festival 2024: T-Pop Story’는 주최측 추산 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될 만큼 호응이 있었다. 10월의 비엔티안 아세안 정상회담과 더불어 열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태국 패딩탄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는데, 특히 한-태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조속한 협상 완료 및 전기차·하이브리드차·소프트파워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었다(Bangprapa 2024).

태국에서 최근 시작된 한국 보이콧 운동인 #뱅크올리 캠페인(채현정 2024; 현시내 2023; 민서연 2024)은 한국어 사용자의 증가 및 번역툴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6월 태국의 혼인평등 법안 통과, 9월의 북부 지역 홍수 등 주요 사건에 대해 한국 뉴스의 댓글 창에서 쏟아진 조롱·멸시·저주의 악플은 이제 약간의 한국어 검색 능력과 번역툴 사용, 그리고 온라인 언론의 보도를 통해 태국인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 되었으며, SNS에서 케이팝과 인종주의라는 토픽이 많은 공감을 얻는 가운데 많은 태국인들은 블랙핑크 멤버 리사 등 태국인들에 대한 평가나 악플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태국인들의 한국 관광은 대폭 감소했는데,<sup>13)</sup> 다만 여기에 뱅카올리 캠페인 등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비호감, 반한 감정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대부분은 한국의 이민 당국에 의해 “명확한 기준 없이 무더기로 추방되는 사례”(윤슬빈 2024)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태국대사관은 일상적인 협력 이외에도 미등록 체류 중인 태

13) 윤슬빈(2024)에 의하면 2024년 9월 태국 관광객의 숫자는 전해에 비해 20%,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48% 감소했다.

국민들이 범칙금을 면제받고 출국할 수 있는 법무부 특별 자진 출국 기간에 대한 홍보, 그리고 태국의 한국전쟁 파병 기억을 되살리는 보훈협력 강화 등으로 양국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11월에는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서 2023년에 별세한 롯 아사나판 씨의 유해를 부산에 안장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그는 “한국전쟁 참전 태국인 최초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된다.<sup>14)</sup>

#### IV. 나가며

경찰병원 14층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때부터 이미 탁신은 세간의 화제였다. 일각에서는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하고 왕실모독죄로 수감되어 있는 정치수들과 탁신 간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사법제도를 비판했으며, 탁신이 프어타이당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어떤 ‘딜’을 성사시켰는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탁신이 퇴원 이후 본격적인 대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그는 늘 화제의 중심이었다. 공식 직책 없이 연립정부의 주요 정치인들과의 회동을 갖거나 유권자들에게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비판적인 시각도 물론 존재하나, 적어도 경제 활성화에는 프어타이당 정부가 나올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총리 시절부터 쌓아 온 주변국 지도자들과의 친분이 태국의 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 정부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선거운동원 탁신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여러 변화를 겪은 태국 정치에는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연립정부 내의 대립도 존재하고, 탁신이 프어타이당과 정부의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거나 입헌군주제를 위

---

14) 주한태국대사관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RoyalThaiEmbassySeoul> 11월 12일 게시물 참조.

협한다는 새로운 청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가 프어타이당 해산을 명령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연립정부가 임기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프어타이당 연립정부는 타이락타이당 정부와는 다른 환경에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상원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품짜이타이당을 비롯한 연립정부 다른 정당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고, 빠라차촌당이라는 젊고 대담한 야당과도 경쟁해야 한다. 각종 정책을 20년 전만큼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기도 힘들고, 인사를 독식할 수도 없다. 이러한 프어타이당 연립정부가 2027년까지 임기를 채우면서 권력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정책 성과 덕분이 아니라 예전과 달리 정책을 느리게 실현하고, 인사권을 다른 보수적인 정당 및 세력과 나누면서 그들과의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타협의 정치가 과해지면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지지층은 프어타이당에서 이탈할 것이다. ‘임기 유지’와 ‘인기 유지’ 사이의 딜레마에 처한 프어타이당이 경제성장과 가계 안정 등의 정책적 성과를 통해 다음 선거로 가는 경로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참고문헌

- 김홍구. 2023. “태국, 선거법 개정과 2023년 총선전망.” AIF 전문가 오 피니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민서연. 2024. “결국 사과한 ‘벤 코리아’ 사태, 태국서 ‘韓 보이콧’ 확산 이유는.” 『조선일보』. 8월 19일.
- 서보경. 2022. “태국의 공공병원 체계와 지역 중심 의료인 교육.” 서보 경 편, 『동남아시아의 건강보장』. 전주: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107-129.
- 서지원. 2006. “태국 탁신 정부의 빈곤 정책과 그 정치적 동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슬빈. 2024. “고민에 빠진 방한시장, 반토막난 태국관광객 수 어찌 나.” 『뉴스1』. 11월 4일.
- 채현정. 2024. “태국의 ‘#한국여행금지’ 사건을 통해 본 호명과 예측화의 공간으로서의 국경.” 『동남아시아연구』 34(3): 39-90.
- 현시내. 2023. “태국 2023: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구조적 문제들.” 『동남아시아연구』 34(1): 63-98.
- Alderman, Petra, Duncan McCargo, Alfred Gerstl, and James Iocovozzi. 2024. “All About China?” *Asian Survey* 64(5): 877-911.
- Arunmas, Phusadee. 2024. “Private Sector Backs Wage Rise.” *Bangkok Post*. December 25: 2.
- \_\_\_\_\_. 2025. “Inflation Level in 2024 Lowest in 4 Years.” *Bangkok Post*. January 7.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934346/inflation-level-in-2024-lowest-in-4-years> (검색일: 2025/02/27)

- Bangkok Post. 2024/12/13. "Modest Growth Likely for Thai Vehicle Production in 2025."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motoring/2919191/modest-growth-likely-for-thai-vehicle-production-in-2025> (검색일: 2025/02/27)
- Bangprapa, Mongkol. 2024. "PM Paetongtarn Meets South Korean Leader." *Bangkok Post*. October 10.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881511/pm-paetongtarn-meets-south-korean-leader> (검색일: 2025/02/27)
- Chachavalpongpun, Pavin. 2010. *Reinventing Thailand: Thaksin and His Foreign Polic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Chalermphanupap, Termsak. 2024. "Bhumjaithai Party Reaps Windfall Benefits from Astonishing Outcome of Thai Senate Election." *ISEAS Perspective* 2024/57. July 24.
- Chambers, Paul, and Napisa Waitoolkiat. 2020. "Faction Politics in an Interrupted Democracy: The Case of Thailand."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9(1): 144-166.
- Cogan, Mark S. 2024. "Thailand's New Soft Power Focus and the Makings of a Paradox."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51 (2): 90-116.
- Harberkorn, Tyrell. 2024. "Drafting a Law is Not Overthrow: Preliminary Observations on Constitutional Court Ruling No. 3/2567." *Justice in Translation* 2/2024.
- Intarakumnerd, Patarapong. 2019. "Industrial Innovation in Thailand: The Electronics, Automotive and Seafood Sectors." Keiichi Tsunekawa and Yasuyuki Todo (eds.). *Emerging States at Crossroads*. Singapore: Springer Nature. 167-192.
- Jatusripitak, Napon. 2024. "Political Stakes of Pheu Thai's 10,000 Baht Digital Wallet Initiative." *Fulcrum: Analysis on Southeast Asia*.

May 2.

- Katanyuu, Ruukun. 2006. "Beyond Non-Interference in ASEAN: The Association's Role in Myanmar's National Reconciliation and Democratization." *Asian Survey* 46(6): 825-845.
- Khaosod English. 2024/10/02. "Foreign Investment in Thailand Hits \$3 Billion in 8 Months." <https://www.khaosodenglish.com/news/business/2024/10/02/foreign-investment-in-thailand-hits-3-billion-in-8-months> (검색일: 2025/02/27)
- Maticchon Online. 2567/12/25. "มติสภาผู้แทนราษฎรผ่านกฎหมายสรรพสามติ ไร่เบียร์ 1.5องวาง จำหน่ายออกสถานทูต." [공동체 양조 진전: 소비세법 개정, 맥주 양조장 밖에서 포장 판매 가능]. [https://www.maticchon.co.th/economy/news\\_4970954](https://www.maticchon.co.th/economy/news_4970954) (검색일: 2025/02/27)
- Ockey, James. 2004. *Making Democracy: Leadership, Class, Gende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ailan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Phongpaichit, Pasuk, and Chris Baker. 2008. "Thaksin's Populis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1): 62 - 83.
- Regalado, Francesca. 2024. "Thailand Extends Visa-Free Travel to 60 Days for 93 Countries." *Nikkei Asia*. July 16.
- Sattaburuth, Aekarach. 2024a. "Move Forward Party Submits 3 Bills for Reform." *Bangkok Post*. July 26.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35987/move-forward-party-submits-3-bills-for-reform> (검색일: 2025/02/27)
- \_\_\_\_\_. 2024b. "Thai Territory Is Safe, Says Govt." *Bangkok Post*. October 31.
- \_\_\_\_\_. 2024c. "Migrant Decision Stirs Fury." *Bangkok Post*. October 31.
- Shinawatra, Paetongtarn. 2024. Statement by H.E. Ms. Paetongtarn

- Shinawatra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Thailand at the 3rd 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Summit under the theme “Sports Diplomacy” on 3 October 2024, Doha, State of Qatar. <https://www.thaigov.go.th/news/contents/details/88721> (검색일: 2025/02/27)
- Sirivunnabood, Punchada. 2021. “Thailand’s First Provincial Elections since the 2014 Military Coup: What Has Changed and Not Changed.” *ISEAS Perspective* 2021/24. March 5.
- Sriring, Orathai, and Panarat Thepgumpanat. 2024. “Thai Economy Faces Upheaval Due to Factory Closures.” *The Japan Times*. July 15. <https://www.japantimes.co.jp/business/2024/07/15/economy/thai-economy-factory-chinese-imports> (검색일: 2025/02/27)
- Strangio, Sebastian. 2024. “Thailand Confirms Details of ‘Informal’ Myanmar Meetings.” *The Diplomat*. December 17.
- Suehiro, Akira. 2017. “New Growth Strategies of Thailand’s Big Firms i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Era.” Boo Teik Khoo, Keiichi Tsunekawa, and Motoko Kawano (eds.). *Southeast Asia beyond Crises and Traps*. Cham: Springer International. 35-69.
- \_\_\_\_\_. 2019. “Responses to the Middle-Income Trap in China, Malaysia, and Thailand.” Keiichi Tsunekawa and Yasuyuki Todo (eds.). *Emerging States at Crossroads*. Singapore: Springer Nature. 27-47.
- Tangsathaporn, Poramet. 2024. “Baby Steps on Road to Joining OECD ‘Accession Process’ Formally Kicks Off.” *Bangkok Post*. October 31.
- TAT Newsroom. 2024/12/28. “Thailand 35 Million Visitors in 2024.” <https://www.tatnews.org/2024/12/thailand-welcomes-over-35-million-visitors-in-2024-a-milestone-paving-the-way-for-2025> (검색일: 2025/02/27)

색일: 2025/02/27)

TLHR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 2024a. “TLHR Expresses Concern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Finding that Proposals to Amend Section 112 of the Criminal Code Constitute An Act to Overthrow the Government.” February 6.

<https://tlhr2014.com/en/archives/64521> (검색일: 2025/02/27)

\_\_\_\_\_. 2024b. “What is the People's Amnesty Bill? And Why Does Thailand Need It?” February 22.

<https://tlhr2014.com/en/archives/64998> (검색일: 2025/02/27)

\_\_\_\_\_. 2024c. “Thailand's Recent Election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 Explained.” October 21.

<https://tlhr2014.com/en/archives/70682> (검색일: 2025/02/27)

Thai PBS World. 2024/06/14. “Thaksin’s Myanmar Talks Unrelated to Thai Government: FM Maris.”

\_\_\_\_\_. 2024/10/01. “‘Beer Barrel’ Politics: MPs Unlikely to Break Thailand’s Liquor Oligopoly.”

Thai Studies Programme. 2024. Webinar on “Understanding Thailand’s Constitutional Reform: Process, Politics, and Implications.” ISEAS-Yusof Ishak Institute. February 8. <https://www.iseas.edu.sg/media/event-highlights/webinar-on-understanding-thailands-constitutional-reform-process-politics-and-implications> (검색일: 2025/02/27)

The Nation. 2023/06/03. “Pheu Thai Says It Remains Committed to Legalising Same-sex Marriage.”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politics/40028237> (검색일: 2025/02/27)

Wongsaranon, Sorawut. 2025. “In 2024, Political Amnesty Faced Tough Resistance. Could Conditional Amnesty Be a Solution for Section

156 동남아시아연구 35권 1호

112?" *Prachathai*. January 7.

<https://prachataienglish.com/node/11260> (검색일: 2025/02/27)

(2025.01.12. 투고, 2025.01.21. 심사, 2025.01.31. 게재확정)

<Abstract>

## Thailand 2024: Thaksin's Return and the Promise of 2027

Jiwon SUH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limited political conditions in which any political party or any politician can be judicially removed, Thai political parties are still striving for the victory in the upcoming 2027 general election, which has led to some successes such as the passage of the Marriage Equality Bill. As much as the seri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to dissolve the Move Forward Party, the political party with the most seats in the House, and to disqualify Prime Minister Srettha Thavisin from his position were politically significant, the return of Thaksin Shinawatra as a major political player on the stage can also be highlighted. Thaksin was released from the police hospital in February and took a more active political role, especially since his daughter Paetongtarn Shinawatra became the prime minister. The coalition government of the Pheu Thai Party has been, however, less decisive in implementing the pro-poor policies than Thaksin's Thai Rak Thai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has made little progress in overcoming the authoritarian legacy of the military rule. Partisan mobilization of distrust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peoples prevented fuller protection of migrant rights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Whether the Pheu Thai Party's dilemma between making compromises with the conservative forces and competing with the People's Party (formerly Move Forward) over the pro-democracy voters can be resolved with the successful economic growth under the new conditions of the higher trade barriers in the world economy and the hegemonic competition remains to be seen.

**Key Words:** Thailand, Thaksin, Paetongtarn, Pheu Thai Party, Move Forward Party, Prachachon Party, Constitutional Court